

담화-텍스트과학의 미래

- 학문사적 제안 -

박여성(제주대)

1. 문제제기

근대학문을 받아들인 이래로, 우리의 학문은 독자적인 사고틀을 정립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미와 유럽, 일본과 중국에 이르기까지 당대를 휩쓰는 거대 패러다임에 기대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몰아닥친 경제적 환경 앞에서 인문학은 과연 학문으로서 추구될 수 있는가, 아니면 후기 산업사회의 기술로 전환되어야 하는가 라는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어문학은 개별언어문학과 일반언어문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기여해 왔지만, 그나마 지금까지의 경제적 면책특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분위기가 대두되어, 이제 '제2외국어문학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자본주의적 잣대에 유린되어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유형의 배제가 자리잡고 있다:

첫째, 학문 정책적 배제이다.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논거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은 정책의 몰상식, 학문분과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과 악육강식으로 인하여 불행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재정권이건 민주정권이건 교육정책은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려는 단골 메뉴이자, 미국의 특정한 대학의 교육이념을 내세운 모르모트 실험으로 점철되어 왔다. 경쟁력을 갖춘 교육으로 시대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대의명분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교육정책은 왜 개혁의 치외법권인가?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그 교육정책을 권고하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차라리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개혁된다고 믿고 있다.

둘째, 지역적 배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영어를 정점으로 하는 언어제국주의로 인한 부조화에 원인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유럽도 이에 편승하거나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못한 결과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특정언어로 된 정보는 여과되지도 않고 성서의 지위를 누리며 (우리나라에서 외국

어는 곧 영어 아닌가?, 수능 외국어 영역을 보라!), 극단적인 경우 하버드에서 나비만 펄럭거리도 서울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난다. 성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국학은, 옷이나 신발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를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보세공장과 다를 바 없다.

셋째, 인식론적 배제이다. 연산주의(Computationalism)에 토대한 언어공학은 인식론적 성찰을 사변철학으로 폄하하고 있으며, 자연언어의 창조성이나 미학적 가치에 집착한 나머지 객관적 정밀성을 결여한 인문주의는 애매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자연언어와 인간의 언어능력을 모조리 연산 알고리즘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믿는 기계주의자들의 과신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뒷북을 치거나 신토불이를 외치는 인문주의는 화합하고 있을까? 양자 사이의 상호불신은 철학적 소양을 도외시하는 언어공학 일변도의 수련과 실증주의에 뒤쳐진 고답적 인문주의, 공동의 책임이다. 한편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는 자연언어처리(NLP)나 코퍼스(Corpus) 언어학에서 양자의 장단점을 취합하는 추세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넷째, 기호학적 배제이다. 지금까지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기호의 제왕으로 모시는 순수주의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인간의 모든 감각이 커뮤니케이션에 동원되는,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인지적 환경인 미디어-영상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페이퍼 백으로 인한 지식의 확산을 두려워하던 중세 기득권 층의 아집과 우려가 근대 계몽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듯이, 미디어-영상 시대의 도래는 언어학의 위기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다. 언어학은 앞으로 분명히 더욱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¹⁾

1) 최근에 국내외 각종 여론매체는 기호와 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열광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호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한국기호학회와 한국영상문화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 세기의 화두로 삼고 있다. 1999년 10월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열린 제7차 세계기호학대회에서는 20세기가 다양한 기호를 매개로 의사소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이며,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하였다. 아울러 다음 세기의 기호 윤리학과 여러 도전과제들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도 교수의 기고(동아일보 1999년 10월 13일자)를 참조할 것.

그러나 정작 해당 학계는 이런 문제를 진단하거나 대응논리를 위한 메타 담론에 소극적이다.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목살하는 것인가, 가치는 인정 하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고민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인가? 하필이면 한국독어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독어학』, 그것도 창간호에서 이런 주제로 골머리를 썩어야 할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필자는 학문사적 담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물론 본고는 일단 필자의 관심영역인 담화-텍스트과학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적인 제안이지, 그 어떤 형태의 도그마도 아니다. 다만 외국학에 임하는 우리 스스로의 학문사적 성찰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2. 패러다임: 축적인가 혁명인가?

지난 30여 년간 유럽(독일과 프랑스, 러시아)과 영미(호주 포함)의 비주류 언어학으로 출발한 담화-텍스트언어학은 주류언어학의 원리를 차례로 차용해 왔다. 그래서 의미론과 통사론을 거쳐서 화용론과 인지과학으로의 확장해온 언어학사적 수순을 답습하면서, 텍스트문법, 텍스트의미론 및 텍스트화용론을 정립해 왔다.²⁾ 그렇다면 과학 이론적 입장에서 담화-텍스트과학은 이전의 패러다임들로부터의 혁명(Revolution)인가 축적(Cumulation)인가?

토마스 쿤(1967)이 혁명과 축적 사이의 과격한 선택을 요구하는 반면에, 볼프강 클라인(1993)은 과학의 발전을 포섭적 축적인가 배타적 축적인가에 따라 판단하자는 온건한 입장을 제시한다:

“게르마니스틱이라는 분과에서, 이전의 특정한 인식들이 이후의 인식들에 의해서 간단히 반박되고 과학사가들에게나 관심 있는 사안으로 전략하는 방식으로 인식의 발전이 진행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모든 게르마니스트들이 생각하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 가정해 보건대 생물학

2) 텍스트언어학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고영근(1999), Helbig(1990) 및 Park(1994)를 참조.

의 영역에서는 그런 식의 인식 진전[배타적 축적]이 있었지만,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물학과는 달리]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사고틀이 -또다시 데카르트나 칸트 나아가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반박된-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주석자들에 의해서 반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인 관심거리로 주저앉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철학에서는 새로운 인식들은 낡은 것들을 대체한다기보다는 마치 나무의 둘레를 에워싸듯이 그 주위에 자리잡는다. 나는 이와 같은 과학들 사이의 대립을 배타적 축적과 포섭적 축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포섭적 축적(Akkumulation)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낡은 분석과는 다른 결과에 도달한 새로운 분석들이 낡은 것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을 관찰하는 스펙트럼을 풍요하게 만드는 경우를 일컫는다. 반면에 배타적 축적(Kumulation)이란, 단적으로 낡은 것은 틀렸으며, 아니면 적어도 특정한 점에서 틀렸으며 그 결과 역사적으로 학문사의 대상밖에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Klein 1993: 43)

물론 개별과학은 부분적으로 포섭적이며 부분적으로 배타적으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독어학은 배타적으로 축적하는 과학”(Klein: 43, 49)이라는 클라인의 진단은 비판적 성찰을 위한 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³⁾ 수많은 학파들이 있어서 각 소속의 진영의 소속자들이 전체적인 연구목표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합치하지만, 해당 영역을 넘어설 경우 학파들 사이의 소통이 곤란해진다면 적어도 다행스런 일은 아니다.⁴⁾

우리 분야의 발전은 무엇이며 어디에 축적되었는가? 어떤 새로운 인식들

-
- 3) 클라인은 “독어학은 배타적으로 축적하는 과학이어야 할 것”(1993: 4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사전에 등재될 정도의’(lexikonfest) 학문적 지식은 기본적인 속성상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받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구분은 쿤의 구분(혁명 [Revolution] 또는 축적[Cumulation])에 비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 물론 학문을 패러다임의 교체만으로 조명하는 것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Helbig(1990: 15이하)를 참조.
- 4) 여기에서 클라인의 일화를 하나 들여보자(Klein 1993: 41-42): 생략 현상에 대한 편람에 실릴 논문을 쓰기 위하여, 클라인은 60-70년대의 자료들을 수용하여 쓴 논문을, 생략현상과 생성언어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동료에게 읽어달라고 했다. 불과 15-6년 전의 생성문법의 개념도구와 사고방식에 너무나도 낮설어서, 그 동료는 클라인의 논문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낡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반박했는가? 과학발전의 모든 개념들이 문서보관소에 고스란히 축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 난감한 문제이다.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편으로 클라인은 언어학적 지식이 “사전에 등재될 (lexikonfest)” (1993: 43)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정할 것을 제안한다. 언어 분석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또는 백과)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지식으로 축적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확실한 독일어의 현상에 대한 지식을 꼽으라면, 그립(Grimm) 법칙이나 그것을 보완한 페르너(Verner) 법칙, 격형태론(Kasusmorphologie), 정동사의 어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최근 20년 동안의 인식소득이 아니다. 이에 견줄만한 현대 언어학의 일상화된 언어학적 지식이라면, 통사론의 초창기에 나온 변형(Transformation) 정도일 것이다. 텍스트언어학이나 화행론의 경우도 상이한 텍스트유형이나 화행유형들에 대한 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규칙들은 무엇인가? 브리태니커나 마이어스, 브록하우스 또는 라루즈에 등재될만한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기껏해야 보편화용론(Universalpragmatik)이나 화자교체(turn taking)⁵⁾ 정도일 것이다.

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발원저작은 십여 년만 지나도 독해되지 않으며, 급기야 해당하는 사고틀 밖에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골동품이 된다. 그리고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모델과 이론소들의 끊임없는 나열의 역사만 계속된다. 반면에 소쉬르와 레비-스트로스를 정점으로 바르트와 그레마스에 의해 만개한 기호학의 이론소들은 언어, 연극, 인류학, 영화, 요리 등에서 포섭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기호학 영역을 제외하면 언어학자들 스스로 날이 갈수록 영어 외의 언어에 비중을 덜 두고 있다. 영어권 학자로는 흔히 않게 여러 언어에 능통한 레빈슨(S. C. Levinson)의 저서 “화용론 (Pragmatik 1983/1990)”에도 외국어문헌이라고는 분더리히(D. Wunderlich)의 연구업적 하나가 고작이다.⁶⁾ 통사론자들은 라틴어와 불어, 독일어, 히브

5) 이에 대해서는 Sachks, Schegloff & Jefferson(1978), 박용익(1998), Fritz/Hundsnerscher (1993), Hindelang/Rolf/Zillig(1995), Levinson(1991)을 참조할 것.

6) 물론 동일한 학문적 영역 안에서도 문제는 있다. 유럽 본토(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대화문법과 영미의 담화분석의 소통장에는 사소한 수준을 넘어선다.

리어 등에 능통한 촘스키의 생성문법의 인식론적 기초를 받치고 있는 흄볼트나 데카르트의 철학적 함의를 얼마나 기억하는가?) 학문사적 통시대(지역적, 언어적, 인식론적)의 축출은 결국 공시대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위협이다. 학문적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과 내부에 머무르고 만다.

또 다른 문제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클라인은 “성찰적 경험주의(semantic Empirismus)”를 제안하며, 이론만능주의를 경고하고 있다. 가장 좋은 이론은 바로 사실이다. 패러다임 교체는 연구현장과도 직결된다. 책상 앞에서 고민하며 스스로를 “완벽한 화자”로 자처하며 한정된 언어체계(System)에 대한 직관을 과신했던 언어학자들은, 이제 컴퓨터의 정보처리능력과 구축된 코퍼스에 힘입어 언어현장의 실재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대량의 자료처리(Datenverarbeitung, RdB 1999)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언어학자의 직관보다는, 방대한 코퍼스를 통한 연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것은 보다 견고한 이론을 위해서도 다행스런 일이다. 국내에도 자연언어처리에 관한 여러 학회의 눈부신 성과는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⁸⁾ 기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진 방대한 자료로부터 보다 설득력 있는 이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⁹⁾

-
- 7) 촘스키는 다중언어를 해독하는 혹독한 문헌학적 수련을 거친 균형 있는 석학이다. 반면에 그 과정을 건너뛰는 에피고넨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내놓은 새로운(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새롭다는 것만으로 상품가치를 가지는) 것을 어떻게 장사해 먹을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촘스키의 최소주의 프로그램(Minimalist Program)보다는 그의 정치학적 에세이가 미국 사회에 던진 함의가 더욱 목격할 것이다. 사상이 촘스키의 면모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모색, 강주현 옮김), “촘스키, 끊임없는 도전”(그린비, 장영준 옮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한울, 김보경 옮김)을 참조할 것.
- 8) 다국어 음성부호를 처리하기 위한 한글의 연구(한국통신 멀티미디어 연구본부)는 언어공학과 인문주의적 언어학이 조화롭게 공조하는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밖에도 전문용어공학센터(KORTERM), 한국어정보처리연구회, 한국인지과학회, ETRI 등의 연구성과를 참조하라.
- 9) 그러나 차세대 IMT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비슷하게, 유사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엄청난 예산이 중복 투자된다(그 결과들이 서로 호환 불가능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나마 예산이 가장 덜 먹히는 인문주의에는 투자효율화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담당자들이, 이른바 신지식산업에는

3. 통합과학의 문제

한 분과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론들의 통합은 시대의 유행인가? 통합은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는 동시에, 분과학문의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른바 텍스트과학은 분과학문(Disziplin)인가 개별과학(Wissenschaft)인가 아니면 통합과학인가?

이 분과의 초창기에는 텍스트에 대한 언어학적 분과로서, 즉 언어학의 일반적인 원리 밑에 속하는 부분영역으로서 텍스트언어학(Textlinguistik)을 주장해 왔다(Coseriu 1988; Heinemann/Viehweger 1991; Brinker 1985; Vater 1992). 그러나 최근에는 텍스트 자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 처리 및 가공의 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가면서, 더 이상 텍스트의 언어학이 아니라, 텍스트(를 정점으로 발생하는 제반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과학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하위분과가 독립적인 개별학문으로 분가할 때 생기는 과학사의 일반적 현상이다. 심리학파 사회학이 그랬고, 통합을 통하여 태어난 분과인 인지과학도 그러한 수순을 밟아왔다. 이러한 차이는 문예학이 독립과학(Literaturwissenschaft)이나 비평(Literary Criticism)이나를 두고 벌어지는 독일어권과 영미권 사이의 입장 차이와도 유추적이다.

독립과학으로서 텍스트(과)학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70년대(슈미트의 Texttheorie[1976])와 1980년대를 거쳐서(반 데이크의 Tekstwetenschap [Textwissenschaft, 1981])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보그랑드의 담화-텍스트과학의 새로운 정초(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1997)에서 야심차게 기획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학문적 독립은 이론소들의 병렬연결에 그쳐서는 안되고, 초학제성(超學際性: Transdisziplinarität)의 모습을 띠어야 할 것이다. 독립과학의 새로운 정초(Foundation)를 놓기 위한 보그랑드의 시도가 언어학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편중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수백만 마르크를 쏟아 부은 VERBMOBIL 프로젝트나 “용가리”의 이윤이 수천 마르크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초학제성을 확립한다면, 텍스트과학은 철학으로부터 심리학과 사회학, 문예학이 독립했듯이 독립과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분과학문으로의 독립에는 당연히 이전의 패러다임과는 상이한 관심과 해결방법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새로운 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담화-텍스트과학은 그 어느 언어학적 원리보다도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좁혀가고 있으며, 학과 내부용 학문을 넘어서서 인간공동체의 지식 증진에 기여하려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다.

4. 텍스트 개념

텍스트 정의 또한 패러다임의 전개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해 왔다. 그래서 통사론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텍스트를 문장의 복합체(Isenberg)로서, 의미론이 주목받던 시기에는 거시구조(van Dijk)로 정의하였다.¹⁰⁾ 그러다가 화용론적 전환을 정점으로 복합적인 기호의 일환으로 그리고 화행의 복합체(Schmidt 1976, Motsch 1996, Viehweger/Heinemann 1991)로서 텍스트가 가지는 특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아가 인지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텍스트의 산출과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주목하기 시작한다(Rickheit/Strohner 1993, Schwarz 1993).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텍스트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공동체 나아가서는 인류 지식의 역사적 전승과 인지-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접속(Feilke/Schmidt 1995)의 결정적인 수단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제 180도의 급진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이른바 컨테이너 유에 기초한 정보전달과 의사소통 모델로부터 벗어나는 (구)소련의 심리언어학(Leont'ev)이나 미국과 독일의 급진적 구성주의(Maturana, Foerster, Glasersfeld, Schmidt) 및 전일주의(Holism)적인 인지과학에서 주장하는 정보와 인식의 구성적 특성으로의 선회이다.

10) 텍스트 정의의 추세에 대해서는 Park(1994: 110-118) 참조.

이러한 텍스트 관의 추이를 집약하는 성층모형(de Beaugrande 1997: 7-9)에서, 보그랑드는 우선 의사소통, 정보전달, 지식저장 및 호출이라는 컨테이너 은유에 기초하는 오프 라인(Off line) 모델과 층위들 사이의 기능적 처리양상(Verarbeitungsmodalitäten)에 초점을 맞춘 온 라인(On-line) 모델을 구별한다. 전자는 하위층위들의 의미가 상위층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형적인 저장 모델(Speicher-Modell)인데 반하여, 후자는 지식의 구성, 인지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구조적 접속¹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소(Phomene)는 음성을 통하여 (언어)체계 속에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Differenzieren)을 가진다. 형태소(Morpheme)는 낱말조각을 통하여 의미들을 문법화시키는 기능(Grammatikalisieren)을 가진다. 어휘소(Lexeme)는 낱말을 통하여 의미를 어휘화하는 기능(Lexikalisieren)을 가진다. 문법소(Syntaxeme)는 구와 문장을 통하여 의미를 선형화 하는 기능(Linearisieren)을 가진다. 텍스트(Texte)는 맥락을 통하여 의미를 통합하는 기능(Integrieren)을 가진다. 끝으로 텍스트종류(Textsorten)는 텍스트 표본을 통하여 의미를 인지도식화하는 기능(Schematisieren)을 가진다. 이러한 구상에서는 일차적으로 형식적 단위들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의 ‘풍요’와 ‘빈곤’ 사이의 진화적인 등급 사이로 진행되는 기능적인 처리양상들을 관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인지과학, 복잡성 이론 및 인공지능 분야 등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의미는 온-라인으로 생산되며 재구조화되는 것이지, 사전의 항목처럼 간단히 기억에서 호출되는 것이 아니다.”(RdB, 1997: 8)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개별언어학(또는 독어학)의 핵심연구대상을 설정할 수 있겠다(Klein 1993: 46-47 참조)

- 개별언어의 제반 층위의 언어구조의 연구: 음운, 낱말, 문장 및 텍스트
- 개별언어 내부의 변이태 구조에 대한 연구: 방언(Dialekte), 사회어(Soziolekte), 상황목록(Register)

11) 이에 대해서는 『구성주의』(1995) 및 『미디어 인식론』(1996)을 참조.

- 개별언어의 역사
- 나날이 변화하는 멀티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맥락은 새로운 과제를 언어학에 제시한다. 그래서 일상대화의 담화구조나 전세계약서 등 실용텍스트의 연구가 제기된다. 나아가 정보화 사회는 콘텐츠(이를테면 전자우편이나 웹에서 통용되는 미디어산출물들)라는 영역까지 제시한다.¹²⁾

5. 텍스트 산출을 위한 지식체계

텍스트 자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식체계들이 동원된다.(Heinemann/Viehweger 1991: 93-111 참조).

- 언어적 지식(Sprachliches Wissen): 언어학의 핵심영역으로 연구되어 온 음성적, 통사적, 의미적 핵심구조를 말한다. 그러나 이 층위들은 어디까지나 발화를 구성한다는 기준에 따라 판정되어야 한다. 실제의 사용에서는 대부분 여타 기호학적 수단과 결합되어 있다.
- 백과사전적인 지식/세상지식(Enzyklopädisches Wissen bzw. Sachwissen): 전문지식과 의미론적 지식 사이의 구별이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순수한 언어적 지식이 아닌 에피소드나 일상지식을 통하여 언어의 형태로 구축된 지식을 말한다.
- 상호작용의 지식(Interaktionswissen): 커뮤니케이션이 목표 지향적 행위라면, 여기에서는 그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화행에 대한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발화수반행위에 대한 지식(Illokutionswissen): 발화행위는 문장서법, 양상어, 발화수반행위들의 위계구조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성공적인 발화행위에는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화행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IH=(ä, int, kond, kons)(Heinemann/Viehweger,

12) 사이버 스페이스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Strate(1996)를 참조할 것.

1991: 100)

- ä =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음운론적, 통사론적 및 의미론적 구조를 가지는 특정한 언어적 표현의 발화
- int = ä라는 발화를 통하여 특정한 목표(Z)를 달성하려는 산출자의 커뮤니케이션 의도
- kond = 발화수반행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ä가 산출되는 상황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의 유한한 집합
- kons =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귀결들

-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규범(allgemeine kommunikative Normen)에 관한 지식: 이를테면 협동의 격률(Grice)이나 겸양의 격률(Leech)
- 메타 커뮤니케이션적인 지식(Metakommunikatives Wissen):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원활한 흐름, 경우에 따라서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을 말한다. 수용상의 보조행위, 궤환가능성
- 텍스트의 전국적(全局的) 구조에 대한 지식(Wissen über globale Textstrukturen): (문학)장르 및 텍스트종류, 초시구조(Superstruktur)에 대한 지식.

6. 텍스트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

지식은 전달되는 고정체인가 아니면 기호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창발하는 무엇인가? 지식과 텍스트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가? 텍스트 자체의 정의와 더불어 텍스트 산출을 위한 지식체계의 근거에는 <의미는 재구조되는 것>이라는 인식론적인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텍스트는 복합적인 지식을 언어적으로 구성하고 조직하는 형식으로서, 해당하는 공동체에 집단적으로 유효한 지식을 우선적으로 조직한다. 그렇다면 텍스트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없는 지식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기술 시대 이전까지의 지식은 문서를 통하여 또는 제한된

미디어를 통하여 정교화, 분화 및 구조화되어서 기존의 지식을 조절하거나 비판 및 변경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왔다. 미디어의 폭발적인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미디어 행위도식(Medienhandlungsschemata)도 눈에 띄게 변했으며, 그 결과 텍스트나 기호에 그 자체로서의 가치 외에도, 또 다른 텍스트와 기호를 만들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할당된다. 문예학에서는 이와 같이 기존의 텍스트 적으로 기초된 지식의 수용적 처리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ät): Genette 1981/92; Plett 1991; Fix 1997; Linke/Nussbaumer 1997[in: Antos/Tietz])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텍스트에 대한 인식론적인 입장은, 생물학적 인식론을 주창하여 구성주의 논의에 불을 지핀 생물학자 마투라나의 인식론과 미디어이론 및 언어학적 시각에서 구성주의 인지이론과 커뮤니케이션(공동체) 이론을 구축하는 슈미트, 파일케(1997)의 논의와, 동시에 인식론적 진화론의 주창자인 풀머의 진화론적 인식론(Vollmer 1990)에 힘입어 전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의 전반적인 입장과 합치하는 안토스(1997: 47-53 참조)는 지식과 텍스트의 상관관계를 자리매김한다: 텍스트는

- 지식의 현전(Manifestation) 형식인 동시에 지식의 언어적 구성형식이다. 지식은 텍스트로서만(동시에 텍스트 안에서만) 구성되고 축적된다.
- 개인과 집단적인 지식의 성공적인 구성-조직형식이다.
- 사회-인지적 지식의 언어적인 구축을 위한 판형으로서 복합적인 지식의 조직형식이며, 제반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을 매체화(Medialisierung) 한다.
-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동시에 지식형식의 분배를 담당하는 형식이다.
- 텍스트에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알려진 즉 이해되어진 지식과 결부되어야 한다,
- 참여자들의 이중의 우발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선별모형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체계이론적인 입장에서 사회언어학적인 변종(Varietäten, Soziolekte, 텍스트종류(Textsorten), 문체(Stile) 등을 수단으로 우발성을 축소한다.
- 참/거짓의 이가 논리(二價論理)보다는 적절성과 성공의 다층성 모델이

요구된다.

- 텍스트는 계슈탈트 원리를 충족한다. 즉 부분들의 합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속성이 창발한다.
- 지식은 인식의 진화의 수단인 동시에 결과이다. 따라서 지식의 분배, 변형 및 혁신을 참고해야 한다.
- 텍스트는 사회적 인지의 형식으로서, 공동체의 현실모델을 구축한다.
- 텍스트를 통한 인지 엔트로피는 꾸준히 증가한다(열역학 제2법칙에 유추해 볼 때). 즉 텍스트의 구조와 복잡도는 계속 증가한다.
-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식과 지식의 사회적 사용의 형식을 생성(재생성), 조직 및 전승하는 문화적 진화를 실천한다.

7. 인접 및 응용분야

담화-텍스트과학은 어느 언어학적 층위보다도 곧바로 실제적인 응용의 분야로 전환된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가 언어의 본래의 언어기호이기 때문이다. 자연언어의 원래의 기호(텍스트)를 무시하거나 언어를 파편으로 조각낸 원자주의적 입장은 더욱 복잡해지는 인간의 언어행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활발히 연구되는 자연언어처리와 코퍼스 언어학¹³⁾은 텍스트언어학과 화용론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 모델 작동에서는 철저한 알고리즘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담화-텍스트과학의 실용화를 위한 거시적인 기획의 틀은 텍스트과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텍스트유형학이다. 텍스트유형학은 유형논리학 및 현상학적 접근(Isenberg 1978)을 복합하는 제3의 길, 이를테면 화행의 실현체이자 현상학적 상태로서의 텍스트종류(Rolf 1993)를 연구하고 있다. 비교언어이론의 차원에서도 서양의 수사학적 전통과 텍스트유형학, 그리고 동양의 수사학적 전통과의 비교언어이론(Vergleichende Sprachtheorie)의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¹⁴⁾

13) 이에 대해서는 정광(1995) 및 VERBMOBIL Projektbericht(1995, 1998)를 참조.

텍스트와 대화분석(Fritz/Hundsnurscher 1994 참조)은 양날의 칼이다. 언어이론적인 발달과 더불어 상담, 통번역 수업, 인성교육에 직접 응용되는 이 분야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의 합리성 문제를 언어실제에서 실증하는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공간은 역시 미디어이다. 미디어 장르(Mediengattungen)와 텍스트 종류의 유추성을 토대로 미디어 체계(Mediensysteme)와 연계된 텍스트과학이 구축될 것이다.¹⁵⁾

나아가 기호학적 질서를 원초적 생명학(Biologie)으로 정립하려는 독일계 스웨덴의 생물학자인 웨스쿨(J. v. Uexküll)의 사상을 계승하는 생명기호학(Biosemiotik)¹⁶⁾과 로렌츠(K. Lorenz)와 아이베스펠트(I. E.-Eibesfeldt)의 행동연구를 토대로 정립되는 행태언어학(Etho-/Ökologuistik, Fill, Heeschen)¹⁷⁾, 시비역(Th. Sebeok)과 포스너(R. Posner)의 화용기호학이 대두된다. 나아가 기호학적 분석은 텍스트사회학과 문학 텍스트의 분석으로 확장되며, 실용텍스트언어학은 전문언어연구(LSP)라는 분과에서 활발히 연구된다.¹⁸⁾

14) 예를 들어 유희의 문심조룡(文心雕龍)의 텍스트언어학적 의의는 매우 광범위한 언어학사적 연구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고영근(1999) 및 Park(1999, 2000)을 참조할 것. 독일 훔볼트 대학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서 언어학 콜로퀴움(Ost-West Kolloquium für Sprachwissenschaft)은 언어이론의 비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도에 개최되는 제3회 콜로퀴움의 제1부(2월 25-26일)에서는 자동번역, 일본어 연구 및 대조언어학을 주제로, 한달 후의 제2부(3월 17-20일)에서는 일본, 한국 및 중국의 언어연구의 역사, 언어유형학, 사회언어학, 언어교육, 언어정책, 가벨렌츠와 현대언어학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15) 미디어과학(Medienwissenschaft)에 대한 총체적인 개괄은 Weischenberg/Merten/Schmidt(1993)를 참조.

16) 이에 대해서는 호프마이어(1998)의 기고를 참조할 것.

17) 행태언어학에 대해서는 Eibl-Eibesfeldt(1997) 및 Fill(1993)을 참조할 것.

18) 독일의 실용텍스트언어학에서는 교술(敎述) 텍스트에 준하는 Pädagogische Texte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었다. 특히 H. Kalverkämper교수가 편집자로 있는 Hannover 대학의 연구총서인 FFF(Forum für Fachsprachenforschung)는 현재까지 통권 50권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왔다. 다루어진 실용텍스트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자연과학, 공학, 이중언어 사전, 전문어 어휘론, 과학언어, 대조 전

광고는 또 다른 상업적 응용분야이다. 국내에서는 신문방송학 분야와 한국기호학회의 연구(1-5집)가 이 분야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고와 더불어 활발한 응용분야는 바로 번역학(Übersetzungswissenschaft)이다. 등가(Äquivalenz)의 문제는 기존의 어휘와 문장의 번역을 넘어서서 화행과 텍스트, 나아가 텍스트종류의 번역 수업 그리고 문학 텍스트 및 문화의 번역(RdB 1978, Cook 1994)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인간 번역의 문제와 더불어 자연언어처리(NLP)와 코퍼스 언어학, 기계번역 및 대화 시스템에도 응용되어야 한다.

개체의 언어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언어교육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ESL/TESOL과 멀티미디어 교육이 활발하다.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만큼 향상되지 않는다면, 이론은 늘 실제와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에서 동원되는 첨단 장비와 전자매체화에도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새로운 매체에 담은 새로운 감각의 상품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프로그램에 담은 내용과 언어학적 수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이때 매체의 환경 변화가 인식론적으로 가지는 함의도 고려해야 한다. 내용은 이전과 같고 담은 매체만 바뀐다면, 진정한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인지방식과 콘텐츠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습을 달리 한 옥상옥(屋上屋)일 뿐이다.

끝으로 언어학은 교육과 열린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¹⁹⁾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논술교육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관료주의와 스타 강사들의 노리개로 전략할 지경이다. 또한 논술보다 논술을 가르치는 담론이 훨씬 난해한 난맥상이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죄없는 학생들은 책을 직접 읽거나 글을 쓰기보다는 인기 있는 강사의 요약교재와 표준 답안을 달달 외우는 구태가 반복된다.

문언어 연구, 학술영어, 텍스트종류별 번역의 이론과 실제, 은유, 저널리즘의 명사적 문제, 법률언어 등.

19) 언어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모델로는 김제봉(1995)을 참조.

8. 전망

학제화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론들의 병렬적 나열이 아닌, 인접과학과의 개념공유를 통한 연계창출이 학제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학제화와 맞물린 실용화 또한 순수이론의 탄탄한 기초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커리큘럼 반영이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제도화는 늘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을 낳는다. 화용론 및 실용언어학의 학제 시스템의 창출 또한 그러한 도전과 타협을 요구할 것이다.

공동연구는 다중언어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의 국제 음성표기 체계 정립을 위한 한글의 응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에는 이 언어권의 학자들의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 영어와 독일어 및 프랑스 같은 대규모의 유럽언어들 사이의 학제적인 연구도 그런 선상에서 필요할 것이다. 기호학과 텍스트이론에서도 공동연구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독일적 학풍과 프랑스적 학풍, 미국적 학풍의 결별이 아닌 수렴과 상호보완이라는 문화적 함의도 가진다. 이때 컴퓨터 과학 기술의 적극적인 응용이 요구된다.

이제 본고의 제안을 요약해 보자:

- 독어학은 이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없는 포섭적으로 축적하는 과학이다.
- 언어학적 분석은 점점 더 침예화해지고 심층적이 되어가지만, 동시에 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일상지식으로도 정착되어야 한다.
- 개별과학의 학문적 진전이 있다면, 학과 내부의 사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인문학의 인접분야의 발전과 공유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호학은 그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 이론을 위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 성찰적 경험주의가 필요하다.
- 향후의 연구는 고립적 연구보다는 더욱더 협동연구의 모습을 띠어야 할 것이다.
- 각종 실험장치 및 컴퓨터, 형식화의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구상에 동의하여 보그랑드 교수와 필자는 향후 3년간에 걸쳐서 “담화-텍스트과학의 새로운 기초(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R. de Beaugrande 1997)”를 한국어판 “담화-텍스트과학: 이론과 실제”라는 개정판으로 공동집필하기로 합의하였다(별첨 참조). 인간은 그 어느 세기보다도 자신이 만든 환경인 문자는 물론 영상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은 기호학이 미디어를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²⁰⁾ 그렇다면 이제 강단 언어학은 일상언어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어느 이론도 실제와 교육을 외면해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 한국영상문화학회의 창립선언격인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1999, 생각의 나무>를 참조.

[별첨] 담화-텍스트과학: 이론과 실제
(R.A.de Beaugrande/박여성[공저], 준비중)

1. 들어가기

교차로에 서 있는 과학
전반적인 계획: 소비주의 대 생태주의
인지적 사건으로서의 텍스트

2. 담화-텍스트과학을 위하여

언어연구의 패러다임 교체
텍스트언어학의 흐름
텍스트성: 문법, 수사학 및 논리학의 입장
텍스트성: 문헌학의 입장
텍스트와 담화를 향하여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미래를 향한 프로그램

3. 인지와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상

고전적인 시각에서 포스트-고전적인 시각으로
모델과 영역 구상의 진화를 위한 전망
코드로의 진화
언어와 담화로의 진화
모델 구상의 기준
모델링의 선형성
근거자료 제한의 모델링
텍스트와 담화 처리과정의 상호작용적인 모델
인지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접속: 구성주의

4. 기능성과 텍스트성

형식, 의미, 기능 그리고 텍스트성
기능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어휘문법을 위하여
과정과 양태의 스키마 디자인
스키마(인지도식)의 확장
절(節)에서 구(句)로
어휘문법(Lexikogrammatik)의 구상: 되돌아 보기
담화의 경제학을 위한 어휘문법
지속과 간결성의 경제학
연결의 경제학
운용적 층위: 억양과 구두점
담화의 층위

5. 가상과 실제 사이의 대개 통제 시스템

문체와 문체론
텍스트유형과 담화 영역(Register)
유형 논리적 분류와 현상학적 분포
특수목적 담화:
LSP(Language for Special Purposes)
텍스트유형학의 이전사(以前史):
문심조룡(文心雕龍)

6. 간 언어적 담화의 이론과 실제

간접적 증거: 언어의 비교와 대조
직접적 증거: 간섭, 차용, 코드-전환
사회언어학: 피진(Pidgin)과 크레올(Creole)
구성주의와 번역이론
번역의 이론과 실제: 커리큘럼의 구상

7. 사회화와 교육현장의 담화

사회화와 교육의 모델링
근대화와 문화 다원주의
위기에 처한 교육
교육의 근대화: 디자인의 진화
교육 조사
행위하기, 알기, 말하기: 새로운 목표설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모저모
언어학습과 언어습득
교육현장과 담화
'토박이말' 교육에서 해독과 읽기
'토박이말' 교육에서 해독과 글쓰기
기초적인 글쓰기(작문과 논술교육)
교실 속의 문법
학교와 문학
외국어 교육
실용적 응용

8. 담화와 총체적 인간

총체성의 전망
담화와 근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담화와 이데올로기
담화와 페미니즘
담화와 정서

용어 및 인명 색인

참 고 문 헌

- 고영근(1995) 단어, 문장, 텍스트. 한국문화사.
- (1999) 텍스트이론-언어문학 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대우학술총서 448, 아르케.
- 기호학 연구 1-5집(1995-1999). 한국기호학회. 문학과지성사.
- 김성도(1995 번역) 현대기호학의 흐름(H.Parret 논문집 번역). 이론과 실천.
- (1997 번역) 의미에 관하여(A.Greimas 논문집 번역), 기호학총서 5, 인간사랑.
- (1998) 현대기호학 강의. 민음사.
- (1999)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 한길사.
- 김재봉(1995) “문 주제 중심의 텍스트 요약과 거시규칙”, 텍스트언어학 3, 텍스트언어학회.
- 김치수/김성도/박인철/박일우(1998)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여성(1996) “음식기호학: 요리 텍스트언어학 입문”. 기호학 연구 3집. 한국기호학회: 문학과지성사.
- (1998)“구성주의 미디어 기호학”. 인문학연구 4집.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 (1999a) “예약대화의 담화구조에 관한 연구”. 언어학연구 4. 제주언어학회
- (1999b) “구성주의 미디어 이론에서 본 몸과 기호”.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인도철학에서 사이버네틱스 까지. 한길사.
- (1999c) “한국어 텍스트유형의 결정변수에 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6, 텍스트언어학회.
- (1999d) “음악과 요리의 대위법: 레비-스트로스의 신화대계의 기호학적 구조”(민예총 문예 아카데미 강연원고)
- 박여성/김성도(2000, 공저) 음식기호학 서설.(준비중)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정광/이기용/김홍규/임해창/강범모(1995 공저) 한국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응용을 위한 기초연구, 민음사.
- 정국 외(이민행/박여성/정소우 등)(1997-1998) 음성언어 시스템 개발을 위

- 한 한국어의 운율구조 및 담화구조연구, KAIST/한국통신연구개발본부.
최동호(1994, 역편) 문심조룡(文心雕龍). 민음사.
텍스트언어학 1-6집(1994-199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이정 출판사.
호프마이어(1998) “기호학과 생물학의 만남”(김성도 옮김), 기호학 연구 4.
한국기호학회.
- Antos, G./H. Tietz(1997, hg.) Die Zukunft der Textlinguistik, Tübingen:
Max Niemeyer.
- Antos, G./H. Tietz(1997) “Einleitung: Quo vadis, Textlinguistik?”, in:
Antos/ Tietz(1997).
- Antos, G.(1997) “Text als Konstititonsformen von Wissen. Thesen zu
einer evolutionstheoretischen Begründung der Textlinguistik”, in:
Antos/Tietz(1997, hg.)
- de Beaugrande, R. A.(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Norwood, New Jersey: Ablex Publishing.
(1997) “Textlinguistik: Zu neueren Ufern?”, in: Antos/Tietz(1997, hg.)
(1999) “Textlinguistics at Millennium: Corpus data and missing
links”, TEXT(forthcoming 2000).
- Cook, G.(1994) Discourse and Literature: The Interplay of Form and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ijk, T.A.(1980) Textwissenschaft: Eine interdisziplinäre Einleitung.
München.
- Eibl-Eibesfeldt, I.(1992) Und grün des Lebens goldnen Baum(한국어판-
생명의 황금나무야 푸르리라, 박여성 옮김, 사계절).
(1997) Die Biologie des menschlichen Verhaltens. Grundriß der
Humanethologie. Seehamer Verlag.
- Feilke, H.(1994) Common Sense-Kompetenz. Überlegung zu einer
Theorie “symphatischen“ und “natürlichen“ Meinens und Verstehens.
Suhrkamp.
- Feilke, H./S.J. Schmidt(1995) “Denken und Sprechen. Anmerkung zur
strukturellen Kopplung von Kognition und Kommunikation”, in:

- Trabant, J.(1995 hg.) 269-297[텍스트언어학 3집에 번역]
- Fill, A.(1993) Ökologuistik, Narr.
- Fix, U.(1997) "Kanon und Auflösung des Kanons. Typologische Intertextualität - ein postmodernes Stilmittel?", in: Antos/Tietz.
- Fritz, G./F. Hundsnurscher(1994 hg.) Handbuch der Dialoganalyse, Niemeyer.
- Genette, G.(1991) Paratexte, Casmplus.
- Greimas, A. J.(1983) Du Sens II. Essais sémiotiques. Édition de seuil.
- Heinemann, W./D. Viehweger(1991) Textlinguistik. Niemeyer.
- Hartung, W.D.(1997) "Text und Perspektive. Elemente einer konstruktivistischen Textauffassung", in: Antos, G./H. Tietz(1997, hg.)
- Helbig, G.(1990) Entwicklung der Sprachwissenschaft seit 1970, Westdeutscher Verlag.
- Hindelang, G./E. Rolf/W. Zillig(1995 hg.) Der Gebrauch der Sprache. Festschrift für Franz Hundsnurscher zum 60. Geburtstag, LIT.
- Klein, W./Ch. v. Stutterheim(1992) Textstruktur und referentielle Bewegung, in: ZLiLi 22. Heft 86.
- (1993) Wie ist der Stand der germanistischen Sprachwissenschaft und was können wir tun, um ihn zu verbessern?, in: ZLiLi 23, Heft 90/91.
- (1987) Quaestio und referentielle Bewegung in Erzählungen, Linguistische Berichte.
- Kuhn, Th.(1967)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 Press.
- Levinson, S.C.(1983/90) Pragmatik, Niemeyer.
- Linke, A./M. Nussbaumer(1997) Intertextualität, in: Antos/Tietz.
- Merten, K/S.J. Schmidt/S. Weischenberg(1994 hg.) Die Wirklichkeiten der Medie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Motsch, W.(1996, hg.) Ebenen der Textstruktur. Sprachliche und kommunikative Prinzipien. Max Niemezer.

- Park, Yo-song(1994) Übersetzung als interlinguale und interkulturelle Neukonstruktion. Eine textlinguistische Analyse der assertiven Textsorten im Deutschen und im Koreanischen. Ein Beitrag zur interkulturellen Textlinguistik. Studien zur Linguistik Bd. 2 LIT Verlag,(Hamburg/Münster)
- (1996) "Für eine konstruktivistische Übersetzungstheorie", in: P. Kunsman (hg.) Linguistische Akzente 93, 30- 61쪽. Hamburg.
- (1999) "Zur Vorgeschichte der Texttypologie: Chinesische Rhetorik als textlinguistische Fundgrube"(Asiatische Germanistentagung 1999, Fukouka).
- (2000) "Brennpunkt der vergleichenden Sprachtheorie" (Vortragsmanuskript zum III. Ost-West Kolloquium für Sprachwissenschaft der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 Plett, H.P.(1991, eds.), Intertextuality. Research in Text Theory,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Rickheit, G./H. Strohner(1993) Grundlagen der kognitiven Sprachverarbeitung, UTB 1735, Francke.
- Rolf, E.(1993), Die Funktionen der Gebrauchstextsorten, Berlin: Walter de Gruyter.
- Sacks, H./Schegloff, E.A./Jefferson, G.(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s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4, 696-735.
- Schmidt, S. J.(1987 hg.)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한국어판, 구성주의 1995, 박여성 옮김, 까치글방).
- (1987), "A Constructivist theory of media-genre", In: Poetics 16.
- (1991 hg.)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2.
- (1992), "Medien, Kultur: Medienkultur. Ein konstruktivistisches Gesprächsangebot". In: Kognition und Gesellschaft(hg. S. J. Schmidt) F.a.M.: Suhrkamp.
- (1994) Kognitive Autonomie und soziale Orientierung. stw 1128.

- F.a.M.:Suhrkamp(한국어판-미디어인식론 1996, 박여성 옮김, 까치글방)
- Schwarz, M.(1993) Einführung in die kognitive Linguistik, UTB 1636, Francke.
- Strate, J.(1993) Communication and Cyberspace. Social Interac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Univ. of Baltimore.
- Svartvik, J.(1992 ed.) Directions in Corpus Linguistics-Nobel Symposium, Mouton de Gruyter.
- Trabant, J.(1995 hg.) Sprache denken. Positionen aktueller Sprachphilosophie. Fischer.
- Varela, F.(1990) Kognitionswissenschaft-Kognitionstechnik. Eine Skizze aktueller Perspektiven, stw. 882.
- VERBMOBIL-Report 65(1995) Dialogue Acts in VERBMOBIL
- VERBMOBIL-Report 226(1998) Dialogue Acts in VERBMOBIL-2.
- Vollmer, G.(1990) Evolutionäre Erkenntnistheorie. S. Hirzel Wissenschaftliche Verlagsgesellschaft Stuttgart.
- Zima, P.(1989) Ideologie und Theorie. Eine Diskurskritik. Francke(한국어판: 이데올로기와 이론, 허창운/김태환 옮김, 1996, 문학과 지성사).

Zusammenfassung

Über die Zukunft der Diskurs- und Textwissenschaft - ein historiographischer Vorschlag -

Park, Yo-song(Cheju Nat'l Univ.)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den Stand der wissenschaftlichen Forschung unter dem sprachimperialistischen Zeitalter. Dazu

möchte ich folgende Punkte zur Diskussion bringen: Erstens, 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sollen nicht nur zur akademischen Bildung, sondern auch zur gesellschaftlichen Praxis beitragen, sonst haben sie in der Zukunft keine Chance zum Überleben. Zweitens, alle möglichen Formen der Diskrimination auf der wissenschaftlichen Bühne, sei es politisch, regional, epistemologisch oder semiotisch, müssen sofort, und zwar von Grund ab abgeschafft werden. Drittens, die germanistische Linguistik soll eine akkumulierende Wissenschaft werden. Dabei darf man nicht mißverstehen: mein Vorschlag ist kein Dogma, sondern ein persönliches Gesprächsangebot, dessen Grundlage in der Diskurs- und Textwissenschaft liegt. Aber damit hoffe ich mindestens, das könnte zur Reflexion über den zukünftigen Stand unseres Faches und zur Verbesserung der gegenwärtigen Situation beitragen.